

혁신학교 현황과 예산지원

- 서울시 혁신학교 예산집행내역을 중심으로 분석 -

2014. 10

바른사회시민회의

사회실 박주희 실장 ntearo@cubs.or.kr

1 조사 배경

- 2009년 경기도 13개 학교로 출발한 혁신학교¹⁾가 전국적으로 585개에 이른다. 지난 7월 진보 교육감들이 대거 당선되면서 혁신학교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향후 4년 내에 혁신학교 수가 적어도 2~3배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이다.
- 한편, 혁신학교 1개당 4000만~1억5000만 원의 예산이 지원되는 점을 고려하면, 혁신학교를 마냥 늘리기보다는 혁신학교의 효과, 지원예산의 적정 기준, 혁신학교로 인한 교육계의 장기플랜 등에 대한 논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
- 이 자료는 서울시 67개 혁신학교의 예산 집행 내역을 분석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혁신학교 현황

1. 혁신학교 현황 및 지원예산

- 혁신학교는 2011년부터 본격 시행되어 현재 6개 지역(서울, 광주, 경기, 전북, 전남, 강원)에서 585개 학교가 지정-운영되고 있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6명의 진보교육감들이 모두 혁신학교를 추진-확대했다.
- 혁신학교 수와 지원예산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 2011년 181개 학교에 184억 원이 지원됐는데 2014년엔 585개교, 320억 원으로 늘었다. 4년 만에 학교 수는 3배, 지원예산은 1.7배 증가한 셈이다. 또한 지난 4년 동안 혁신학교에 투입된 금액은 총 1200억 원에 이른다.(<표1> 참조)
 - 학교당 평균 지원액은 서울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혁신학교 지정 첫 해 이후 계속 감소했다. 교육청의 예산이 한정된 상황에서 학교 수를 늘리다 보니 학교 지원예산이 줄어든 듯하다.
- 지난 7월 취임한 13개 지역 진보교육감들 대부분이 혁신학교 확대를 공약²⁾으로 내세웠다. 계획대로라면 향후 혁신학교 수는 약 2000개까지 이를 전망이다.(<첨부1> 참조)

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105조(자율학교)에 의한 혁신학교는 입시보다는 창의적이고 주도적인 학습능력을 높이고, 교육과정의 다양화-특성화를 통해 공교육을 정상화시키자는 취지로 시작됐다. 강원도는 행복더하기학교, 광주시는 빛고을혁신학교, 전남은 무지개학교라 칭한다.

2) 현재 시행 지역 외 2015년부터 실시 예정인 곳은 부산, 인천, 대전, 세종, 충북, 충남, 제주이다. 운영계획 없음을 밝힌 교육청은 울산, 경북, 경남, 대구, 대전이다.

<표1> 혁신학교 현황 및 지원예산

(단위:개,천원)

교육청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예산합계
	학교수	예산	학교수	예산	학교수	예산	학교수	예산	
	(학교당 평균)		(학교당 평균)		(학교당 평균)		(학교당 평균)		
서울	29	3,616,000	61	8,881,470	67	10,035,370	67	4,690,000	27,222,840
	124,690		145,598		149,782		70,000		
광주	4	400,000	10	1,000,000	18	1,436,500	26	1,872,000	4,708,500
	100,000		100,000		79,806		72,000		
경기	89	9,150,000	155	14,018,000	230	17,590,000	285	17,039,673	57,797,673
	102,809		90,439		76,478		59,788		
전북	20	1,700,000	48	2,055,000	84	4,216,000	101	3,938,000	11,909,000
	85,000		42,813		50,190		38,990		
전남	30	2,650,000	40	2,600,000	51	2,920,000	65	2,990,000	11,160,000
	88,333		65,000		57,255		46,000		
강원	9	900,000	41	2,600,000	41	1,909,200	41	1,517,000	6,926,200
	100,000		63,415		46,566		37,000		
총계	181	18,416,000	355	31,154,470	491	38,107,070	585	32,046,673	119,724,213

※ '11년~'14년 서울시혁신학교에는 서울시가 학교당 1000만 원씩을 지원.
 ※ 경기도는 '09년 13개 학교(12억 원), '10년도 42개 학교(54억 원)을 지원.

2. 혁신학교 예산 지원기준 및 예산용도

- 매년 각 교육청은 혁신학교의 학급 규모 또는 학생-교직원 총인원, 혁신학교 운영년수 등을 기준으로 학교당 지원예산을 정하고 있다.
- 각 교육청의 '혁신학교 예산 편성-집행 기준' 지침을 보면, 예산은 주로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교원역량 강화, 학부모참여-지역사회 협력, 시설비, 교구/교재 구입비, 인건비 등에 편성-집행하도록 돼 있다.
 - 예산 편성-집행에 있어서 학교들은 비교적 폭넓은 재량권을 갖고 있다. 서울과 경기 등 일부 교육청에서는 교사워크샵, 시설/기자재비, 업무추진비의 예산 비중을 제한하는 정도다.

3 서울시 혁신학교 집행내역 분석

1. 서울시 혁신학교 사업별 예산 비중

○ 혁신학교 예산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서울시 혁신학교 67개의 2013년도 예산 집행 내역을 영역별로 분류했다.(<표2> 참조)

- 행정정보조인력 급여와 외래강사 수당 등 ‘인건비’ 비중이 36.9%로 가장 높았다. 두 번째로 프로그램 운영과 교구재료 구입 등 ‘교육과정 다양화와 교수학습방법 개선’을 위한 사업비가 전체예산의 31.3%를 차지했다.

<표2> 서울시 혁신학교 2013년도 예산 집행³⁾

(단위:천원,%)

영역	예산	비중	항목 ⁴⁾
1.교육과정 다양화-특성화 2.교수학습방법 개선	3,089,092	31.3	프로그램 운영, 교구재료 구입, 체험학습-문예체 등 지원
3.교원전문성 향상	294,459	3.0	교사연수-워크샵-컨설팅 지원, 교사동아리-도서 지원
4.생활교육 및 위기학생 관리 교육활동 개선	695,573	7.0	부적응학생-저소득층 지원, 폭력예방-인성프로그램 운영
5.학교문화개선,업무효율	631,096	6.4	학생-학부모 동아리 지원, 학생-지역 자치활동 지원
7.인건비	3,659,189	36.9	행정정보조인력, 외래강사, 상담사
8.시설비	366,834	3.7	학교내 시설물 보수, 기자재 구입
9.업무추진비	204,267	2.1	각종 협의회 지원
6.기타	839,184	8.5	학교 브로셔 제작, 달력-소식지 발간

2. 서울시 혁신학교 예산 집행 내역 분석

※ 아래 (1)~(7)에 해당하는 부적절한 집행 내역(일부 사례)는 <첨부2> 참조

※ 2013년도 서울시 혁신학교 예산 편성-집행 기준은 <첨부3> 참조

(1) 인건비 과다

○ 2013년도 서울시 혁신학교 지원예산 총 100억 원 중 인건비가 37억 원에 달했다. 행정정보 조인력 급여에 16억6000만 원, 외래강사 수당에 15억 원이 집행됐다.

- 행정정보조인력 고용에 있어서 일반학교와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주장은 계속 제기됐다. 일반학교에는 행정정보조인력 1명이 지원⁵⁾되는데, 혁신학교는 지원예산으로 2~3명

3) 영역내용과 번호는 서울시 교육청이 제시한 항목이다. 다만 1,2영역은 경계가 뚜렷하지 않고, 비슷한 사업이라도 학교별 기입한 영역이 서로 달라 예산과 비중을 하나로 묶었다.

4) 학교별 집행 내역을 보고, 본 보고서의 작성자가 구분한 항목이다.

5) 일반학교의 행정정보조인력 인건비는 1500~1600만원 수준이다. 그에 반해 혁신학교는 학교마다 인건비

을 고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서울시 혁신학교 18개 학교(27%)가 행정보조인력을 2명씩 고용했고, 그 외의 학교들도 학습준비실보조사란 명목으로 우회적으로 행정보조사를 고용했다.

- 외래강사 인건비가 지나치게 많은 것도 심각하다. 어떤 학교는 외래강사 수당 비중이 전체예산의 53.7%(8600만원)였다. 일반학교는 외부강연 1년 예산이 100~200만원 수준이고, 방과후학교-동아리활동 등을 위한 예산은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운영된다. 혁신학교의 지원예산 수 천만 원이 외래강사 수당으로 집행된 것은 일반학교 수요자에게 역차별을 불러오는 셈이다.
- 일부 학교는 혁신학교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공익근무요원, 청소용역, 조리사에게도 혁신학교 지원예산으로 인건비를 집행했다.

(2) 수익자 부담 원칙에 어긋난 체험학습

- 현장체험학습 및 방과후학교는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실질적으로 도움이 절실한 학생들에게만 예산을 지원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일부 학교들이 이를 무시하고 체험학습비에 예산을 과다 지출했다.

(3) 기자재/시설비⁶⁾ 과다

- 혁신학교 프로그램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시설에 예산을 과다 집행한 경우가 다수 발견됐다. 일반적으로 학교 예산에는 책걸상 구입이나 교실 공사비 등의 학교환경개선 사업비가 책정돼 있다. 혁신학교가 그런 종류의 시설비에 지원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일반학교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 일부 혁신학교는 컴퓨터, 노트북, 실물화상기, 카메라/캠코더 등 구입에 많은 예산을 집행했다. 이미 학교 예산에는 정보화기기 구입비가 포함돼 있고, 정보화기기의 종류, 가격 등을 결정하는 위원회를 거쳐 기기들을 선정-구매하게 된다. 이 또한 일반학교와의 형평성이 맞지 않는 문제가 지적될 수 있다.

(4) 학교기본운영비로 지출될 항목⁷⁾에 예산집행

- 많은 혁신학교들이 복사기 임대, 서가 구입, 학사력 제작 등에 혁신학교 지원예산을 집행했다. 학사력과 교무수첩 구입은 학교기본운영비로 충당하는 품목이다.
- 혁신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서 복사기/프린터 임대료 등의 추가 비용이 물론 발생한다. 그렇다면 이 부분의 과다 지출을 막기 위해 예산비중의 상한선을 둘 필요가 있다.

가 수 백만 원씩 차이가 난다.

6) 서울교육청 지침에는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 꼭 필요한 경우에만 시설비를 편성하도록 돼 있다.

7) 프린터, 복사기, 가구, 복사용지 등이 통상적으로 학교기본운영비로 지출한다.

(5) 축제-행사 지원 과다

- 학교 축제도 혁신학교 프로그램의 다양화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다. 하지만 음향-조명 대여나 장소대관, 의상대여 등 일회성에 그치는 부문에 예산이 많이 집행됐다.

(6) 혁신학교 취지와는 무관한 사업에 지원

- 일부 혁신학교가 학급티 제작, 생일케이크 구입, 도서보안시스템 구축, 공공요금 납부 등 혁신학교의 취지와 거리가 먼 사업에 예산을 집행했다.

(7) 교사 동아리 지원

- 교사동아리 중에도 연구가 아닌 취미를 목적으로 하는 모임에 혁신학교 예산이 집행됐다. 어떤 학교는 교사 4명의 일본 해외연수비를 지원했다. 일반학교에서의 교사 해외연수는 매우 특별한 목적 하에 드물게 진행된다.

3. 서울시 혁신학교 예산의 부당 집행 (<표3> 참조)

(1) 서울시지원금의 부당 집행

- 서울시지원금 1000만 원은 프로그램의 다양화-특성화 등 학생들을 위한 교육에 지원돼야 한다. 인건비와 시설비, 업무추진비에 집행하는 것은 불가하다. 그럼에도 몇몇 학교가 이를 위반해 서울시지원금을 인건비로 지출하고, 심지어 어떤 학교는 교사용 노트북 구입에 집행했다.

(2) 서울시교육청의 예산 편성-집행 지침 위반

- 2013년도 서울형 혁신학교 예산 편성-집행 기준에 따르면, 교사 관련 운영비용은 전체예산의 5% 이내여야 한다. 그러나 교사연수-워크숍-컨설팅 사업비와 시설비의 집행 기준을 위반한 학교들이 다수 발견됐다.
- 특히 혁신학교에서 교사 관련 운영비 집행내역을 여러 영역에 분산 입력해, 겹으로 는 지침 위반여부가 잘 드러나지 않았다.

<표3> 서울시 혁신학교 예산의 부당 집행

집행기준	학교명	집행내역
서울시지원금 (1000만 원) 지출영역 외 집행	A학교	방과 전/후 ‘혁신스포츠클럽’ 외래강사비(10,000,000원)
	B학교	문화예술 체험활동 등 외래강사비(6,688,300원)
	C학교	행정보조인력 인건비(10,000,000원)
	D학교	‘신나는수요일’ 외래강사비(10,000,000원)
	E학교	교사용 노트북 23대 구입비 중 일부 부담(10,000,000원)

교사 관련 운영비 5% 초과	F학교	교사문화 연수(9,780,000원), 현장연수(2,572,500원) 컨설팅 장학(484,000원)
	G학교	수업력제고 연수비(7,150,620원), 전교사교육과정수립 워크숍추진(3,000,000원)
	H학교	교사 동아리, 교사연수(8,352,210원), 교사학습 동아리 협의회(493,880원)
	I학교	교사연구 동아리(4,401,790원), 전문성 향상(1,316,780원) 교사문예체 프로그램(2,538,000원) 교사혁신 워크숍(2,927,000원)
	J학교	교원 컨설팅 장학, 동/하계 연수 등(7,162,320원)
	K학교	수업연구회, 컨설팅 등(4,873,270원) 동/하계 워크숍(2,493,000원) 워크숍 식대비(1,867,500원)
	L학교	교사연수, 연구회, 도시동부반 등(7,124,390원) 교사어울마당 다과/상품권(816,400원) 하계워크숍 다과(468,000원), 교사워크숍 다과(274,750원)
	M학교	수업혁신을 위한 수요연구/토론/연수(6,051,930원) 전문성 향상 컨설팅(2,211,000원), 교직원 워크숍(1,376,990원)
	N학교	교직원 워크숍(2,472,000원), 교원전문성 향상(7,209,300원) 혁신학교 워크숍(1,991,820원)
	O학교	수업 연구회(6,713,000원), 수업공개 간식비(3,500,000원) 교사 워크숍(5,137,370원)

4 혁신학교 지원예산의 집행내역 추이

※ 서울시 일부 혁신학교의 집행내역 추이는 <첨부4> 참조

초반	<input type="checkbox"/> 기자재-시설비, 자료제작-도서구입에 집중 <input type="checkbox"/> 행정보조인력 및 인건비 점점 증가 <input type="checkbox"/> 외래강사비 증가
↓	
후반	

- 혁신학교 지정 초반에는 기자재-시설비, 자료제작-도서구입에 과다 투입
 - 첫 해에는 프로그램의 다양화-특성화 보다는 악기/스포츠나 과학/수학 교구 구입, 복사기/프린터 등 기자재 구입, 학교환경개선에 예산을 많이 지출했다. 특히 혁신학교 소개를 위한 홍보물 제작 예산이 많이 집행됐다.
- 행정보조인력 점차 증가
 - 서울시 혁신학교의 학교당 지원예산이 2011년(평균 1억2469만 원)에서 2013년(평균 1억4978만 원)까지 꾸준히 늘었다. 또 학교도 경험을 바탕으로 점차 다양화된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게 됐다. 그러면서 혁신학교 행정업무보조 인력도 늘어나게 됐다.

○ 외부 초빙 강사 증가

- 혁신학교 지정 1,2년이 넘으면 수업교구나 시설 등 교육제한 환경이 조성돼, 다양한 프로그램 수행이 원만해지고 그에 따라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도 증가한다. 자연스레 혁신학교 초기의 교구-시설 예산이 외래강사비나 인건비로 이전하게 된다.

5 시사점 및 개선 방안

1. 시사점

○ 교육청의 사후적 체크 문제

- 교육청은 혁신학교 예산을 지원할 때 ‘예산 편성-집행 기준’도 함께 제시한다. 하지만 지침 위반이나 집행내역의 결격 사항이 있는지 등 사후 점검은 미흡한 수준이다. 서울시 혁신학교의 경우 부당 집행, 지침 위반 사항이 발견됐지만 문제되지 않았다.
- 교육청마다 점검 주기는 다르지만 해당 지역의 혁신학교를 대상으로 자체보고서 또는 현장방문을 통해 혁신학교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대부분 예산집행 점검보다는 학교의 프로그램 활동을 보고받는 수준인 것으로 보인다. 단, 경기도 교육청은 지난해 4월 혁신학교 운영비 점검을 실시해 점검결과를 해당학교에 통보했다⁸⁾.
- 또한 예산을 지원받은 혁신학교는 당해 집행결과만 교육청에 제출한다. 예산 집행의 적절성이나 혁신학교 취지에 부합하는 사업비인지에 대한 외부감시도 약하다.

○ 일반학교와의 형평성 논란

- 혁신학교의 체험학습-방과후학교 참가비 지원, 외래강사비의 예산 편중 등은 일반학교의 학부모-학생에게 역차별이다. 일반학교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르는 반면, 혁신학교는 다양화-특성화 프로그램이라는 명분으로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 혁신학교의 기자재/시설비 과다 집행, 행정보조인력 추가 고용, 교사동아리 지원 등도 일반학교와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이 것 또한 일반학교 교육수요자들의 차별과 연결된다.

8) 경기도 교육청은 2012년도 혁신학교 운영비 정산서를 점검해(무료프로그램 운영 여부, 시설비-내부비 품비 초과 여부, 협의회 경비 집행 과다 여부 등) 해당학교 점검결과를 알리고, 2013년도 집행 계획을 수정하여 다시 제출토록 함.

2. 개선 방안

○ 예산 지원 기준을 바꿔야

- 현재 교육청들은 해당 학교의 학급 수, 학생-교원수 등 학교규모라는 외형적 요소를 기준으로 혁신학교 예산을 지원한다. 그것보다, 혁신학교가 추진하려는 프로그램 내용과 그에 따른 교구-재료나 시설, 외부강사 활용 유무가 예산지원의 기준이어야 한다.
- 혁신학교가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을 교육청이 지원하는 ‘Down(혁신학교)-Top(교육청)’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 매년 말, 혁신학교가 프로그램 계획서와 필요예산을 교육청에 제출하고 교육청이 이를 검토 후 적정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다.

○ 예산 집행에 대한 감시 강화

- 각 교육청에 ‘혁신학교 지원-감독 위원회’를 설치해서 혁신학교 예산의 내실화-효율화를 기해야 한다.
- 위원회는 예산지원 전, 혁신학교가 제출한 프로그램 계획서를 검토하고 지원예산을 결정한다. 또 예산집행 후, 지출내역 보고서를 바탕으로 과다 지출이나 지출 위반, 계획에서 벗어난 집행 등 예산집행의 적절성을 점검한다.
- 이렇게 하면 수익자 부담 원칙에 어긋난 지원, 일회성 지출, 인건비 과다, 교사관련 운영비 과다, 일반학교와의 형평성 논란 등의 문제를 해소할 것이라 기대한다.

- 첨부 1. 교육청별 향후 혁신학교 지정-확대 계획
2. 서울시 혁신학교 예산의 부적절한 집행 내역 (일부 사례)
3. 2013년도 서울시 혁신학교 예산 편성-집행 기준
4. 서울시 일부 혁신학교의 연도별 집행내역 추이

【첨부 1】

<향후 혁신학교 지정-확대 계획>

지역	교육감성향	시작연도	지정 현황	향후 계획
서울	진보개혁	2011년	67개교	임기내 200개로 확대(언론사 인터뷰) 혁신학교-혁신교육지구 확대(공약사항)
부산	진보개혁	(2015년 예정)		2015~2017년 매년 10개교(총30개교) 지정 운영(교육청 회신)
대구	보수중도			계획 없음(교육청 회신)
인천	진보개혁	(2015년 예정)		2015년부터 매년 10개씩 총40개를 지정 거 점학교로 운영(교육청 회신)
광주	진보개혁	2011년	25개교	혁신교육지구 운영(공약사항)
대전	보수중도	(2015년 예정)		2015년도에 3개교를 시범운영(공약사항)
울산	보수중도			계획 없음(교육청 회신)
세종	진보개혁	(2015년 예정)		임기 내 세종형 혁신학교로 공교육 혁신 (공약사항)
경기	진보개혁	2009년	285개교	혁신학교 1300개로 확대 혁신학교 지원센터 설립 (공약사항)
강원	진보개혁	2011년	41개교	전체 학교 10% 혁신학교 확대(공약사항) ※ 100여 개로 추측
충북	진보개혁	(2015년 예정)		2015년 10개 내외, 2018년까지 40개 (교육청 회신)
충남	진보개혁	(2015년 예정)		2015년부터 매년 20개 이상 지정 2017년까지 100개 학교 운영(교육청 회신)
전북	진보개혁	2011년	101개교	혁신연수원 학교 30곳 혁신파일럿스쿨 4곳 운영(공약사항)
전남	진보개혁	2011년	65개교	도시형 무지개학교 100곳 확대 혁신교육지구 10곳 내외 지정(공약사항)
경남	진보개혁			임기내 경남형 혁신학교 운영(공약사항)
경북	보수중도			계획 없음(교육청 회신)
제주	진보개혁	(2015년 예정)		2015년 3개, 2016년 6개교, 2017년 8개교 2018년 10개(교육청 회신)

【첨부 2】

<서울시 혁신학교 예산의 부적절한 집행 내역> (일부 사례)

항목		학교/집행내역
인건비 과다	인건비 비중 전체의 50% 초과	J학교 64.7%(103,960,910원), A학교 63.7%(101,992,000원), P학교 51.9%(77,798,740원), Q학교 50.6%(71,381,296원), L학교 53.5%(78,230,000원), R학교 50.8%(58,903,960원), S학교 55.6%(86,623,000원), T학교 53.8%(94,445,690원).
	행정보조인력 2명 이상 고용	18개 학교(27%)가 행정보조인력을 2명씩 고용. U학교는 행정보조인력 2명 외 행정전담 인력 1명 고용. (행정보조 총 인건비 57,371,040원) V학교는 행정보조인력 3명 고용(41,669,000원).
	외래강사비 과다	A학교는 외래강사비 비중이 53.7%(85,888,000원), J학교 38%(61,032,000원), W학교 33.1%(53,320,000원), F학교 32.2%(59,525,500원).
	혁신학교 무관한 인건비 지출	E학교는 공익근무요원에 3,395,870원 X학교는 청소용역에 10,625,070원, Y학교도 11,880,000원 T학교는 조리사에 6,900,960원을 지급
수익자 부담 원칙에 어긋난 체험학습 과다 지원		Z학교 스키/스케이트 체험에 21,255,100원, G학교 수영영어캠프에 15,713,800원, AA학교 스케이트 체험에 10,375,000원, AB학교 스키보드 체험에 12,294,500원 집행.
기자재/ 시설비 과다	혁신학교 프로그램 과 직접 연관 없는 시설비	AC학교 수업녹화실 구축에 12,000,000원, K학교 홍보게시판 제작에 10,694,000원, G학교 벽화그리기에 10,560,000원, C학교 그린감성교육장에 14,500,000원, AD학교 야외이야기터에 13,000,000원, AE학교 밴드부 방음시설에 4,000,000원, AF학교 명화구입에 5,639,700원/냉난방기 구입-설치에 8,264,990원, AG학교와 AA학교는 생태텃밭/자연학습장 조성에 각각 10,000,000원, AB학교 책걸상 구입에 3,600,000원, AH학교 학생사물함에 9,491,390원, AI학교 자율학습실 공사비에 18,000,000원 집행.
	정보화기기 구입 과다	E학교 교사용 노트북 23대(20,000,000원). X학교 실물화상기 77만원짜리 25대(17,492,370원). U학교 대형 인쇄기기(6,650,000원), AJ학교 갤럭시탭 16대(16,811,040원) 구입.
학교기본운영비 지출 항목에 예산 집행		I학교 복사기 구입에 4,000,000원, AK학교 복사기/프린터 임대 5,208,340원, AL학교 교무수첩 제작에 8,113,800원, T학교 학사력 제작에 4,900,000원 집행.
축제-행사 지원 과다		L학교 서초예술제 국악원 대관/물품대여에 9,970,200원, O학교 축제에 14,805,640원, AM학교 10,000,000원, AI학교 11,000,000원 집행.
혁신학교 취지와는 무관한 사업에 지원		AN학교 매월 생일케이크 44개를 구입(9,422,060원), A학교 생일축하의날을 정해 학급에 6,820,000원 지원, AJ학교 런닝머신기에 6,016,510원, AO학교와 AP학교는 도서도난방지시스템 구축에 각각 6,901,160 원과 4,704,110원을 집행, AQ학교는 공공요금으로 6,883,720원 집행.
교사 동아리 지원		AR학교 배구/배드민턴/독서 교사동아리에 1,200,000원, K학교 교직원 배구대회/독서모임 운영에 1,322,120원 AS학교 독서문학기행비로 889,700원, AE학교 교사 4명에 대한 일본 연수비 3,000,000원 집행

2013년 서울형 혁신학교 예산 편성. 집행 기준

학교정책과(2013. 03. 20)

- 「2013학년도 학교회계 예산 편성 기본 지침」 및 「학교회계직원 인사노무의 이해」의 기본지침 준수
- 예산용도 :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교원연수비, 전문기관 컨설팅비, 시설비, 교구/교재 구입비, 인건비(행정보조인력) 등
- 프로그램 운영비 : 서울시지원금(10,000천원)을 포함한 전체 운영지원비의 60% 이상
 - ※ 프로그램은 구체적인 교육적 효과를 기대하고 학생에게 직접 투입하는 일련의 교육적 활동을 의미함
 - ※ 강사비는 「2013학년도 학교회계 예산 편성 기본 지침」(79쪽~80쪽)에 따라 적정 비용을 편성함
 - ※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교구/교재 등 비품 구입은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하며 프로그램 운영비 중 차지하는 비중이 과도하지 않게 편성함
- 교사 연수, 워크숍, 컨설팅 등 교사 관련 운영비용 : 5%이내
- 행정보조인력 인건비 : 일반학교와의 형평성 고려
 - ※ 인건비는 「2013학년도 학교회계 예산 편성 기본 지침」 및 「학교회계직원 인사노무의 이해」의 채용 및 계약 관련 지침을 준수하되, 「2013학교회계직원 인건비 지원 세부기준」(서울특별시교육청 예산정보담당관-2267, 2012.12.31)을 참고, 일반학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편성함
- 업무추진비 : 전체 운영지원비의 2.5% 이내
 - ※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 경비만 편성함.
모든 협의회비를 업무추진비에 편성함
- 시설비 : 전체예산의 10%이내
 - ※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 꼭 필요한 경우에만 편성함
- 사업목적에 충실히 이행하여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함

【첨부 4】

<서울시 일부 혁신학교의 연도별 집행내역 추이>

□ 혁신학교 지정 첫 해는 기자재-시설비, 자료제작-도서구입에 과다 투입

- AP학교(2011년 지정)
기자재/시설비 (11년)24,676,380 → (12년)6,000,000 → (13년)6,925,350 (간이분광기 구입, 동아리실 조명설치)
자료제작/도서구입 (11년)15,258,730(학교홍보자료, 도서구입)
→ (12년)14,920,890(창의체험 자료, 선사연구 진행, 도서구입)
→ (13년)8,230,000(한국사워크북 제작,교과별 수업자료 제작)
- AT학교(2011년 지정)
기자재/시설비 (11년)30,435,555(복사기2대,인쇄기1대,노트북1대,실물화상기3대,악기,사진기)
→ (12년)13,874,000(운영물품, 동아리악기) → (13년)4,873,000(빔프로젝트)
자료제작/도서구입 (11년)30,245,250(도서구입,교수학습자료)
→ (12년)1,706,090(도서,연구비) → (13년)4,000,000(자료제작)
- S학교(2011년 지정)
기자재/시설비 (11년)40,054,260(사무용품,교구기자재)
→ (12년)22,865,000(관악반 악기,녹색환경조성,집기,교사연구실 보수)
- P학교(2011년 지정)
기자재/시설비 (11년)12,368,350(과학,실과 교재 교구)
→ (12년)30,613,480(교구,소모품,상담실공사) → (13년)4,209,440(연못, 벤치,교실암막)
- F학교(2012년 지정) 기자재/시설비 (12년)13,622,500(악기), 9,575,690(연못,하늘정원)
- AJ학교(2012년 지정)
기자재/시설비 (12년)20,786,800(노트북 건전지,패드,책걸상,회의실탁자)
→ (13년)16,811,040(갤럭시탭), 11,016,510(컴퓨터,빔프로젝트,런닝머신)
자료제작/도서구입 (12년)12,274,160(신입생 홍보,홍보물,교수자료개발)
- AH학교(2012년 지정)
기자재/시설비 (12년)29,200,660(교구,책장) → (13년)26,328,200(수학음악 교구,교실사물함)
- AC학교(2013년 지정)
기자재/시설비 (13년)11,842,100(악기,수학교구), 12,000,000(수업녹화실)

□ 행정보조인력/인건비를 늘려나감

- AP학교: (11년)15,127,170(1명) → (12년)34,693,880(2명) → (13년)31,673,740(2명)
- S학교: (11년)18,483,560(1명) → (12년)29,888,890(2명) → (13년)32,315,540(2명)
- U학교: (11년)18,444,550(1명) → (12년)19,232,705(1명) → (13년)35,839,740(2명)
- L학교: (11년)17,000,000(2명) → (12년)41,500,000(2명) → (13년)45,600,000(2명)
- AU학교: (12년)22,114,910(1명) → (13년)48,000,650(2명)

□ 매년 외래강사비 증가

- AP학교: (11년)13,824,000 → (12년)21,000,000 → (13년)43,863,450(인문학 강사, 자율학습 지도사, 전문상담사)
- S학교: (11년)5,738,380 → (13년)54,307,460(스포츠클럽,밴드,관악 등)